

제360회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5월24일(목)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국무조정실
 - 나. 교육부
 - 다. 외교부
 - 라. 환경부
 - 마. 국토교통부

상정된 안건

-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2
 - 가. 국무조정실
 - 나. 교육부
 - 다. 외교부
 - 라. 환경부
 - 마. 국토교통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준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세먼지 관련 부처 중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지 못한 외교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그동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고농도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3월 25일에는 서울·경기 PM2.5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 $\mu\text{g}/\text{m}^3$ 에 달하며 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악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4월 6일에는 서울 한때 PM10 미세먼지 농도가 300

$\mu\text{g}/\text{m}^3$ 를 훌쩍 넘기며 프로야구 출범 최초 미세먼지를 사유로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심각한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전체회의, 세 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서울에서 최초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방과 민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학교를 선정해 10만 교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단계적 설치 확대를 추진 중이고 올해 3월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의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지점이 부적정했던 점을 개선해 미세먼지 측정 현실화가 이루어졌고 기존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졌던 굴뚝TMS 측정 결과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께 숨 쉴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룬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외교적 현안 대책 논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도 강도 높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국무조정실
- 나. 교육부
- 다. 외교부
- 라. 환경부
- 마. 국토교통부

(14시05분)

○**위원장 전혜숙** 먼저 환경부와 외교부 보고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 신창현·김승희·최도자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푸른 하늘 만들기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속 있는 미세먼지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생활환경정책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실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했던 것은 생략하시고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생활환경정책실장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오늘은 한중 미세먼지 협력 분야에 대한 보고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그간 진행 경과입니다.

작년 8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환경협력계획 수립에 합의했고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배석하에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서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대통령께서 중국 특사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이 있음을 언급하셨고 동 특사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사업 진행계획입니다.

먼저 한중 미세먼지 연구사업 관련해서 한중일 3국은 지난 95년도부터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조사에 합의를 하고 지난해까지 4단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 6월에 정책결정자용 미세먼지 요약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한중 양국 환경과학원 중심으로 한중 공동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는 이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베이징 등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으로 관측·조사하는 청천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중 양국 정부가 한국의 우수한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의 현지 제철소 등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86억 원 규모 6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0억 원 규모 36개 사업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사업 대상 지역, 분야,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법률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부 간에 정례적으로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환경협력계획 수립과 환경협력센터 설치입니다.

금년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올해 6월

중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 양국 간 환경협력 사업을 확정을 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양국 간의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협력 등 환경협력사업 이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양국 과장급 공무원을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국장급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한중 외교채널 활성화입니다.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부터는 미세먼지 요약 보고서 발간 그리고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한중 협력채널 설치를 위해서 외교부와 협력해서 금년 10월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미국과 캐나다 간 대기질 협약 사례를 참고하여 동아시아 대기질 협약 체결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는 베이징 공장의 산동성 이전 그다음에 중국 동부지역의 소각장 건설 또 중국 동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현지 공관과 무역협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제2차관입니다.

오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 관련 외교부의 업무를 이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저희 외교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중국 협력 방

안에 대해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지침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외교부 측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간단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일차적으로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양자적 차원의 협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또한 다자적 협력을 했음을 염두에 두고 역내 다자협력 대응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적 차원과 다자적 차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자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치체제에 비추어서 국가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상 수준의 의제화를 하는 것과 또 다양한 수준에서 양자 채널을 계속 가동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에 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고위급에서의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가급적 최고위급, 즉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정상회담 그리고 2017년 12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시에 미세먼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시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실질적 성과 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그간 양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핵심적 사안으로 간주해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고위급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저는 수석대표로 참석했는데 그때 중국 측에 아주 강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했고 또한 다자적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에 개최되는 제3차 한중 기후변

화협력 공동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컨텍스트(context)에서 미세먼지 공동 편익효과를 공동 분석하고 앞으로 함께 대응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자 차원에서 역내,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동북아 환경협력계획, 즉 NEASPEC 고위급 회의 계기에 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중국과 또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미세먼지특위가 활동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차관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보고를 들으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지요?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 어느 정도는 외교부차관님께서 해 주셔서, 그동안 정부가 무슨 활동을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지만 환경부장관께서만 답변하는 것보다는 외교부에서 오셔서 오늘 소명을 해 주시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부가 활동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미세먼지특위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9일 날이 저희들 활동 마감입니다. 활동 마감이기 때문에 28일 날 마지막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을 구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를 신경 쓰지 않는 그날까지 정부와 국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의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결의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 본회의 개의 이전에 미세먼지특위를 소집해서 결의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이나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방으로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그것을 논의해 보시고 최종 결과를 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28일 날 결의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안은 간사님들께 먼저 보내서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미세먼지특위 마지막 회의에도 많은 위원님들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동수 위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서면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상임위가 여러 군데 같이 개최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과 환경부하고, 환경부가 요즘은 좀 힘을 받아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외교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외교부에서 오셔서 소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저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서면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김승희 위원님 서면질의 있었고요. 김삼화 위원님 서면질의하시고 또 최도자 위원님 서면질의 있고요. 유동수 위원님 서면질의 있고, 신창현 위원님도 서면질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그러면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강훈식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쭙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서……

환경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실내공기질 기준이라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리고 대기환경 기준하고 이게 다르게 별도로 규정돼서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부터 아주 작은 곳까지 굉장히 다양한 규모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을 외부 공기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 실제로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외공기를 기준으로 그냥 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잘 만들지 않는 편입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내공기가 더 관리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강훈식 위원**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이 기준을 만든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런 셈이지요.

○**강훈식 위원** 제가 보니까 PM10이 대기환경 기준에 100이고요, PM2.5가 35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런데 실내공기질 기준에서는 PM10이 150이고, PM2.5가 초미세먼지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훈식 위원** 초미세먼지 기준은 아예 자체가 없던데요. 이게 왜 이런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실외공기는 대기오염 기준들을 설정해서 그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내공기는 실외공기를 바탕으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잘 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에 외부의 공기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외부의 공기보다 실내 기준을 더 잘 관리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초미세먼지의 외부 기준은 있는데 실내에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것을 왜 안 만드는지……

○**환경부장관 김은경**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차 강화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자꾸 그러시는데 답답한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 오죽 답답하면, 기준이 환경부에서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여기 교육부차관님도 오셨지만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PM2.5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는 이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에 보면 이미 학교는 하고 있고, 환경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너무 딜레이(delay)되고 있으니, 학생들에 대한 요구라든지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있으니 오히려 주무부처가 아닌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이미 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 어린이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초미세먼지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학교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가 권고 기준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연도별로 강화해서 2021년까지 35를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천……

○**환경부장관 김은경** 2021년까지 35로……

○**강훈식 위원** 3년 뒤에?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훈식 위원** 이것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 보면서 약간 놀랐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것을 관리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어머니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물론 여러 가지들을 조정해야 되는 환경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는 만들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의 말씀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큰딸은 상관없이 있는데 작은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민들에게 곤궁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서 기준을 동일하게, 학교와 다중이용시설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PPT 준비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한중 미세먼지 저감기술협력 실증 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난번에 환경부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행 현황을 보면 ‘완수’ 해서 ‘한중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해서 완수한 과제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특위 회의에서도 장관님께서 ‘이것은 실무선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더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화면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에 4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실무 수행을 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집행된 금액은 167억 원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51%지만 나머지는 18%, 14%, 3.3%도 있고요. 2016년에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결국 반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실증사업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4년 동안에 참여후보 기업으로 공모한 기술은 54개 정도에 이르는데 참여후보 업체가 중복 포함해서 33개 정도인데 중국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다음 넘겨 보시면 6개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고 계시고요.

그중에 설치가 완료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저기 보시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3건. 6개 사업을 계약해서 3개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3건 사업 계약이 더 있었는데 진행도 못 하고 종료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우리가 환경부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석탄발전 또 제철소 구조조정으로 모두 제대로 사업도 진행도 안 하고 정지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제대로, 나머지 3건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 2015년 것은 다 종료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드라든가 이런 외교적 이슈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중관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이렇다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그동안 있었겠지만 중국 사정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건강권과도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여기 외교부에서도 나오셔서 굉장히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이 잘될 것 같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이렇다가 또 한중관계 얼어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금년 6월부터는 외교부·환경부 간 협조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외교부 답변이 돼 있어요, 대응방안 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중국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지원도 또 못하고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6년, 17년의 성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중국 방문한 게 17년 12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진행 상황들이 거의 중단 상태였고요. 대통령 협의하시고 나서 17년 12월 이후에 사업들이 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이 18%, 15% 이렇게 낮았던 것은 당연히 그쪽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의 성과는 그렇게 낮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외교부차관님, 지금 환경부장관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외교부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잘될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부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는 외교부, 환경부간에 협력 약정도 맺어 가지고 구체적인 대중국 환경외교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중관계가 큰 틀에서 잘될 때도 있고 좀 어려운 시기도 있고 그래 왔던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잘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산업구조를 바꿔 가지고 일시에 미세먼지를 낮추는 그런 굉장한 노력을 우리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중국의 최고위층에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전달하고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모처럼 외교부에서 나오셔서 앞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향후 대중관계에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은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신 것 아시지요? 말씀하신 내용과 또 대응방안에 대해서 딱 두 쪽으로 자료를 만드셨어요.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심도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에도 청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했냐고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보면 ‘양국이 협력 중이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 안 돼서 소송은 불가하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비굴한 외교로써 우리가 실제로 중국에다가 요구할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좀 적극적으로 외교부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강훈식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교육청 여기저기서 간이측정기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측정하면서 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예산 확보에 노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측정기에 대한 정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측정 수치가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치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차관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저 자료를 보시면 저것은 실외측정기에서 측정한 거예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현관 입구 천장에다가 설치해서 측정한 건데, 저 측정치를 보면 측정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료를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건데 최고치를 나타내는 10개 학교의 현황을 보면 PM2.5가 평균값이 $42\mu\text{g}/\text{m}^3$ 이예요. 평균값이 42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초미세먼지의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쁨’에 해당

되거든요. ‘나쁨’이 36~75 $\mu\text{g}/\text{m}^3$ 예요. 그러니까 ‘나쁨’에 해당되는 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것을 알면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승희 위원** 불안해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시간 단위로 측정해서 나온 평균값인데 이것의 최고치를 보면 400이 넘습니다. 400이 넘으면, 물론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문가 말에 의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노출 시간이 길게 되면.

환경부장관한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실내공기나 이 실내공기 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승희 위원** 실태조사를 했더니 어때요, 결과가?

○**환경부장관 김은경** 정확도가……

마이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희 위원** 마이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간이측정기별 정확도가 저희 조사에 따르면 48%에서 86%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정확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특별법 안에 간이측정기 인증제도 근거를 만들어서 인증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법에 들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도가 낮은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센서들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든지 기기 구조라든지 유지·보수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법 통과해 가지고 시행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된 방법론을 만드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확보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도관리가 안 된 기기를 사서 설치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이크 하나 옮길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희가 국회 내에 미세먼지특위를 만들고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미세먼지TF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서로가 쳐서 내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조기에 저감시키겠다는 의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을 때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왜 대책이 빠져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었고 국무조정실 차장님께서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내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에 있어서 미세먼지로 결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존재 의미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미세먼지 TF팀이 구성돼 있다라는 그런 존재 의미를 느끼게 돼서 참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우리 국내의 자체적인 노력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

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보셨고.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이 15%, 20% 정도는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그리고 현재 북한의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석탄과 나무를 원료로 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병욱 위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로, 저희가 남북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남북 간 첫 교류사업으로 산림 협업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 협업사업은 이전에도 조금씩 있어 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화되리라고 보고요.

남북 간의 산림 협업은 북한의 산사태를 막고 녹화를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세먼지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포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재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원인으로 보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남북관계 변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의 산림 협업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이후에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측면,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림을 많이 가꾸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쪽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오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에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 외교부로서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의 환경 협력, 다자적 협력체제가 마련돼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북한을 초청하고 협력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중 간의 협의와 공동연구, 공동대처 못지않게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외교부, 환경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암모니아 배출이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 때보다 암모니아의 배출량이 줄어들면 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면 초미세먼지가 크게 감소된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3월 29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황과 질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업자의 탈황·탈질 시설에 암모니아의 주입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장관님, 황과 질소를 줄이려다가 암모니아 배출이 늘어나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미세먼지 발생 과정을 1차 생성과 2차 생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70%는 2차 생성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도자 위원** 전문가들 중에는 황이나 질소 등 다른 물질보다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2차 생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

다고 해요. 그런데도 환경부는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킬지도 모르는 암모니아 사용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방금 제가 소개한 연구자료만으로는 암모니아가 황이나 질소보다 미세먼지 발생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추정만 가능하지 정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동의합니다.

○**최도자 위원** 연구에 대한 장관님의 강한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환경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LNG발전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보다는 청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 정도 측정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저감시설 설치가 면제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LNG발전소는 상시 가동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을 멈추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부식돼서 산화철하고 황산화물, 많은 성분이 만들어져서 1년에 한 달 이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보다는 조금 청정하다 그렇더라도 심각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환경부가 전국의 160개 LNG발전소에 집진설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것을 봤는데요, 한전 발전자회사 다섯 곳하고는 협의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하고 나머지는 권장사항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항 이 조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 보면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40이 넘게 측정된 적도 있고 또 환경부가 우리 방에 제출한 자료에도 50에서 80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행령이 규정하는 “항상…… 이하”라는 요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말씀하신 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지금 저희가 2018년에 석탄발전보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LNG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서 지도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도감독은 지도감독 차원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점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는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방지시설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제출한 LNG발전소 인근 민원 야기에 따른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산화철, 황산화물 등에서 원인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대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발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LNG발전소 준공허가 신청 시에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에서 최근 발견된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이런 물질이 배출되니까 이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새로, 보니까 거기에 신고되지 않은 물질이 나왔다면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주호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LNG발전소가 지금 한 160개 정도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이 두 규정을 다 적용해서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새로운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약속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다음 회의까지 보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 당시까지의 진행 상황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상황까지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장관님,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도별 특성이나 도시별 특성이 나오는 게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로 데이터(raw data)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별도로 비교분석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현아 위원** 분석을 해서 나오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해서 여기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저희 집 식구들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플이 보니까 대부분 환경공단, 그러니까 에어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대기정보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대기나 국가배경, 도로변대기, 교외대기로 해서 각각 구분된 측

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해서 어플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가 어플을 활용해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미세먼지 현황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5월 15일 9시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우 나쁨, 위험합니다! 외출을 삼가세요!'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확한 걸까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에어코리아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다면……

○**김현아 위원** 예.

○**환경부장관 김은경** 에어코리아의 정보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현아 위원** 어플 맨 밑으로 내려 보면요 이것에 대한 측정 장소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PM10 측정 장소는 '지품면'이라고 되어 있고 PM2.5 측정 장소는 '장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니요.

○**김현아 위원** 모르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청송군 청송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품면은 여기서 20km 떨어진 경북 영덕군이고요, 장량동은 자그마치 60km나 떨어져 있는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가 청송군 청송읍의 정확한 대기, 미세먼지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에어코리아에 있는 청송군의 측정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앱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청송군에 대한 측정치, 에어코리아의 정보가 저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측 측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앱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청송군 청송읍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근처의 측정 장소가 있다면 저 어플이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겠냐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군의 측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

로 하시는 건가요?

○**김현아 위원** 아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없는 곳들을 전체 찾아서 지금 보완하고 있어서요 없는 곳이 2016년에 81개였던 것을 17년에 40개까지 줄였고요, 올해 15개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시기가 지나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준비는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송군이 그 경우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송군만의 사례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공간적으로 측정 장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가면 측정 위치가 바닥이나, 건물 위냐,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플을 보고 그날의 미세먼지 상태를 보고 출근을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확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설치 장소를 늘리는 것도 답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관님, 요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고, 외국에서는 각각 개인들이 어플이나 측정 장치를 여기에 달아서 자기가 움직이는 곳에서 대기를 측정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도 미세먼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고민은 안 하시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측정을 하는 방법이, 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많은 자료를 올리는 것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또 다른 부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측정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측정치,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우선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 측정 장소가 설치되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20km 떨어져 있고 하나는 60km 떨어져 있는 쪽의 측정값을 가져오는 일이 없어집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런 것은 해소됩니다.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김삼화 위원, 김승희 위원, 신창현 위원, 유동수 위원, 임이자 위원, 주호영 위원, 최도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병 원	강 훈 식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승 희	김 현 아	신 창 현	유 동 수
임 이 자	전 해 숙	주 호 영	최 도 자

○**청가 위원(1인)**

송 옥 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 형 욱
교육부	
차 관	박 춘 란
교육안전정보국장	류 정 섭
외교부	
제 2 차 관	조 현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권 세 중
환경부	
장 관	김 은 경
생활환경정책실장	유 제 철
대기환경정책관	김 종 료

환경경제정책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황 계 영
김 경 욱